

잠비아에서의 교사교육

이윤정 선교사는 사무국에서 간사로 봉사하다가 2003년 아프리카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잠비아로 출국했습니다. 현재 잠비아의 바울레니, 남푼두웨, 린다, 말라카타 등 시골지역에 교회와 학교를 건축하고 선교와 기독교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희영 교수는 2007년부터 잠비아를 방문하여 열악한 현지 교육상황을 돌아보고 기독교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기독교사 교육사역에 비전을 같이 하고자 하시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총신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부회장)

잠비아에서의 사역은 이윤정 선교사의 교사교육에 대한 부탁을 받고 시작되었다.

2007년 7월 말부터 8월 초에 잠비아의 남푼두웨의 부쉬지역과 카푸웨의 강 선교사님의 교회 두 곳에서 사역이 이루어졌다. 남푼두웨는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차로 두 시간 정도 들어간 지역으로서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곳이었다. 남푼두웨에서 어린이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성경학교와 10여 명 내외의 교사, 카푸웨에서는 어린이 300여 명과 1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부쉬지역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복음과 교육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교사들 또한 정식으로 교육받지 못한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로서 주변의 버려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 교육은 2009년 2월 초에 이루어졌다.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조금 떨어진 차와마와 차이사 두 곳 교회에서 주일학교와 커뮤니티스쿨 교사들 80여 명을 대상으로 교사교육을 하였다. 커뮤니티 스쿨이란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기존의 공립이나 사립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교회들이 주일학교 교사들 가운데 자원자를 모집하여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치

는 학교를 말한다. 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며 대개 100여 명의 아이들이 칸막이도 없는 공간에서 연령별로 대개 네 그룹으로 나누어져 그룹별로 등을 맞대고 교육을 받는다. 물론 교사들도 대부분 봉급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교육에 임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첫 번째 교사교육 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많은 교구나 교재를 준비하지 않고 잠비아에 있는 것을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도 풍성한 책과 정보 그리고 자료들로 넘쳐나서 다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비해 잠비아에서는 공부를 할래야 공부할 수 있는 책이나 자료가 없고 활동을 하고 싶어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공부도 할 수 없으며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사교육을 마치고 교사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를 쓴 현지 교회 목사님과 여러 지역으로부터 교육을 받기 위해 왔던 교사들 가운데 대표되는 분들과의 평가를 통해 모두가 자신들에게 너무도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과 다음에도 꼭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을 들으면서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세 번째 교육은 2010년 2월 3일부터 13일까지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번 교사 교육 때 교육 장소에 비가 새고 어두우며 소음이 많아 열악했던 것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장소를 빌려 두 반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 번 보다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것 같다. 교육 한 후 수료증도 수여 하였다. 교육을 마치고 평가를 한 결과 수업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의 수강자들에게서 나왔다.

외국에서 선교를 할 경우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그 다음이 신학교, 그리고 여력이 되면 기독교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하신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어려운 일이며 그 외의 일들도 만만치 않은 일들이다. 이렇게 어렵게 선교사들이 처음에 세웠던 학교 본래의 목적이 한 세대나 두 세대가 지나면 대개 퇴색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본다.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의 연세대나 이화여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세운 학교들이 지금은 처음의 설립 목적에서 대부분 벗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의 하나

는 기독교학교는 설립을 하였으나 그 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교사들을 키워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잠비아에서의 교사교육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교사들이 모두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이라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이 커뮤니티 스쿨에서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비아가 너무 멀어 많은 비용이 들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비아의 커뮤니티스쿨 교사를 위한 교육은 장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부쉬지역 아이들의 굶고 해맑은 눈망울을 생각하면 그 아이들에게 복음과 함께 이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절실히 요청되며 누군가에 의해 부쉬지역의 교육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지기를,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